소시오컬처전망
SOCIO-CULTURE FORESIGHT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폿 르포르타주

사진 및 글: 이상훈

-1편-

한국적인 문화와 습관

한국적인 디자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위와 같은 말들을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된다. 입시미술에서 한국적인 것을 그리라는 주제가 나왔을 땐,태극무늬,기와 등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에 대하여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난다. 그럼 한국적인 것들은 전통적인 것이 외에 대하여 무엇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기획의도>

한국적이란 말을 듣는다면 위와 같이 한국의 전통문양, 한국의 도자기와 태극무늬, 연등 그런 이미지를 생각한다. 한국적인 말은 맞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국적인 기억들이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많은 생활과 습관과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현대적 한국적인 것을 찾아 새롭게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

개요. “무궁무진”과 “애매모호한”의 매력

한국적이란 말은 범위가 “무궁무진”하며 그 관계 또한 “애매모호”하다. 쉽게 한국적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어느새 외국문화 및 제품 전반에 걸쳐 많이 흡수가 된 상황이다. 나는 전통적인 한국문화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적인 행태와 습관에 대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거리 혹은 문화가 될 수 있기도 하다.

a. Trashbin is wonderful

옆에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시는 쓰레받이이다. 하지만 그 안에 휴지들이 들어있다. 무엇을 의미할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나 틈이 보인다면, 항상 휴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관심)를 통해 디자인을 응용한다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b. Thinking is moving

옆의 사진은 지하철의 사진이다. 선반을 보면 신문을 찾게 된다.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다른 사람들은 올려진 신문을 다시 꺼내 읽게 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된다. 현재는 무료신문을 많이 배포하여, 신문을 수거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무료신문에 의하여 생겨난 행동들이다. 또한 지하철의 광고판 틈새 사이로 다른 광고가 끼워져 있다. 위와 같은 행태들은 현대사회에서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한국적인 행태가 아닐까...

C. Korea marketing culture

전봇대를 보면 광고지가 붙어져 있다. 그 광고 또한 다양하다.

헬스장 및 과외 전단지 까지 많은 광고를 하기 위하여 전봇대라는 공간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한국의 마케팅이나 광고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지하철 광고판의 틈새를 이용한 광고 또한 그 틈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다는 생각이나 행태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

<그림1>

<그림2>

<그림3>

d. Tasty is test

위의 사진은 거리 및 마트에서 시식코너의 모습들이다. 마트에서 음식을 그 자리에서 조리하여 지나가는 분들에게 음식을 홍보하는 하나의 광고방식이다.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시식코너를 위해 마트를 찾는다는 사람들도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3번째인 사진은 거리에서 시식과 광고홍보를 위해 나레이터모델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는 모습이다.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함께 나레이터모델들이 춤을 추어 그 가게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된다. 시끄러운 소리가 싫어도 한번쯤은 고개를 돌려 쳐다보게 된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이다.

e. “Dum” & “Dumer”

덤+덤이라는 행사의 모습이다. 마트에 가면 사은품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며, 하나더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하나더”라는 사은품이 없을 땐 사람들이 구매를 적게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습관처럼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있다는 점이다. 큰 마트가 생겨남에 따라 한국인만의 소비패턴을 잘 파악하여 만들어진 색다른 마케팅방법이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행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Keyword Dum & Dumer

한국적인 덤 문화을 일컷는 키워드로 도출,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가 따라온다는 뜻의 ‘DUM’ 과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Dumer’로 지칭.

f. Melting pot 2 in 1

음식문화에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왔던 짬짜면이다. 짬짜면은 짬봉과 짜장면을 반반씩 담겨진 음식을 짬짜면이라고 부른다. 항상 중국집을 가면 짬뽕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라는 고민은 누구나 한번쯤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 고민을 덜어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하여 반반씩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나오게 된다. 한국적인 발상이며, 한국의 식습관을 잘 파악한 한국적인 문화이다.

다른 한편은 이열치열이다. 더운 날엔 뜨거운 것을 먹어야 더위를 이겨낸다? 라는 아이러니한 말이다. 이 음식문화 또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문화이며, 습관과 고정관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g. Recycling Repair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두수선전문점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을 세워놓은 모습도 한국적 거리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구두수선이라고 말하면 거리 위에 조그맣게 있는 구두수선이라는 글이 적힌 공간이 바로 떠오르게 된다. 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때문에 혹시 내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과 자기자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철제 구조물을 세워놓는 모습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하면서 재미있는 한국적인 모습이다.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적인 행태와 습관들은 한국 특유의 소비심리나 한국적인 문화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부분이 많았던 것을 느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 디자인적인 면에서 풀어나간다면 한국만의 위트있고 재치있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2편엔 한국적인 행태와 습관을 바탕으로 한 이상훈의 디자인제안이 게재된다.